

MLB 보는데 제일 짜증 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오늘 밤에 한다고 봤는데 왜 새벽에 시작하지?” 같은 상황이 떠오를 때예요. 특히 mlb중계는 시차 때문에 더 자주 겪습니다. KBO는 한국 시간으로 고정된 편이라 비교적 덜 흔들리는데, MLB는 미국 동부시간(ET) 기준으로 편성이 나오고 한국은 거기에 맞춰 계산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핵심은 “대충 몇 시간 더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일정 확인할 때 시차 변환을 실제로 적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방법을, 실제로 일정 페이지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확인하면 실수가 줄어드는지 중심으로 풀어볼게요. 야구중계, mlb중계, 야구중계사이트까지 같이 엮어서요.

ET 기준 MLB 시작 시간, 한국이 왜 더 빠르게 오나

한국은 KST(UTC+9)이고, 미국 동부시간(ET)은 시기에 따라 UTC-5 또는 서머타임 UTC-4를 써요. 그래서 한국이 ET보다 13시간 빠르기도 하고 14시간 빠르기도 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MLB중계는 한국에서 주로 “전날 밤”이 아니라 “다음 날 새벽~오전”에 걸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MLB가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특정 시각에 시작한다고 가정해볼게요. ET가 UTC-5로 운영되는 시기면 한국은 13시간 빠르고, ET가 UTC-4(서머타임)로 운영되는 시기면 14시간 빠릅니다. 같은 ET 시간이라도 한국에서의 체감 시간이 달라지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일정만 보고 “그냥 13시간 빠면 되겠지”로 넘겼다가, 하루 날려먹은 적이 있어요. 처음엔 별거 아닌데, 막상 경기 보려다 보면 그게 얼마나 크게 돌아오는지 알게 됩니다. MLB중계는 경기 시작 타이밍이 빠서서, 계산이 한 시간만 어긋나도 스트라이크 존도 보기 전에 이미 한참 지나버려요.

“보정”이 필요한 이유: 한국은 ET를 고정으로 보면 안 됨

ET가 항상 같은 오프셋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의 뿌리예요. 한국은 KST(UTC+9)로 그대로인데, ET는 UTC-5, UTC-4를 오가요. 즉, “한국은 ET보다 몇 시간 차이”를 한 번만 정해두고 끝내면 그 이후 변동 구간에서 틀어질 수 있어요.

이걸 일정 확인에 적용한다는 건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첫째, MLB가 일정 표기에서 ET 기준을 쓴다는 점을 받아들이십시오. 공식 일정과 관람 관련 안내도 시즌 편성에서 ET를 전제로 다루져요.

둘째, ET의 시기에 따라 13시간 또는 14시간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걸 일정 확인 단계에서 계산에 반영합니다. “나중에 대충 찾아봐야지”가 되면, 그때는 이미 경기 시작에 가까워져 있어서 판단이 흔들립니다.



공식 일정 페이지를 볼 때, 시차 변환을 어디에 끼워 넣을까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시간을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실수 확률을 줄이는 건 공식 일정 기준으로 “한국 시작 시각”을 미리 만드는 습관이에요. KBO는 일정/결과 같은 페이지에서 경기 시간, 장소, TV/RADIO 편성, 결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고, MLB도 schedule에서 당일 경기와 팀별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 확인을 시작하는 순간”에 계산을 넣는 거예요. 화면에서 ET 시간을 읽자마자, 한국 시각으로 바꿔 적어두는 식이죠. 이렇게 하면 다음 단계에서 흔들릴 일이 줄어듭니다. 특히 다음날 새벽 경기로 넘어갈수록 “오늘 밤”이라는 감각이 깨지기 쉬워서요.

내가 실제로 쓰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일정 페이지에서 ET 시작 시간을 보고, 한국 오프셋을 적용해 KST 시작 시간을 잡아요. 그리고 그 시각을 [mlb중계](#) 기준으로 야구중계 볼 플랫폼 들어갈 타이밍도 같이 정합니다. 예를 들면 중계 들어갈 시간은 경기 시작 몇 분 전이 아니라, 최소한 오프닝 장면과 라인업 확인할 시간을 고려해서 더 넉넉하게 잡는 편이에요. 시차 계산이 정확해도, 로그인이나 로딩 때문에 늦으면 체감은 또 달라지거든요.

KBO랑 비교하면 더 빨리 감이 온다

KBO는 한국 시즌 자체가 한국 시간대에 맞춰 돌아가고, 시즌 후반부에는 잔여 경기 편성 공지에 따라 평일 18:30, 토요일 17:00, 일요일·공휴일 14:00 같은 시작 시각 패턴이 생기기도 합니다. 즉, 한국 야구중계는 “시간이 바뀌더라도 같은 나라 안”이라 체감이 훨씬 덜 흔들려요.

반대로 MLB중계는 미국 동부시간 ET 기준 편성이라, 한국이 훨씬 빠르게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전”이라도 KBO 오전은 평범하지만, MLB 오전은 거의 매일 새벽 감각이 섞인 식으로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일정 계산을 더 꼼꼼히 하게 됩니다.

ET에서 한국 시간으로 바꿀 때의 실제 사고 흐름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실수가 나는 지점이 있어요. 보통은 “13시간”과 “14시간” 중 뭘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치는 경우고, 그 다음이 “ET 시간의 날짜가 한국 기준으로 넘어가는지”를 대충 넘길 때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정 확인을 이렇게 끊어 생각합니다. ET 시작 시간을 보고 나면, 한국에서는 하루가 넘어가는지부터 확인해요. 예를 들어 ET 기준 오후나 저녁 시간이 한국으로 오면, 한국에서는 이미 “다음 날” 오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먼저 감으로 걸러두면, 계산이 맞아도 날짜 감각이 틀어지는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정리하면, 변환은 숫자 계산이고, 실수 방지는 날짜 감각 확인이에요.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내려다 생기는 오류들

사람이 일정 변환을 잘 못할 때는 대개 이유가 있어요. “한 번만 해보자”는 마음이 너무 커질 때요.

예를 들어 어떤 야구중계사이트에서 한국 시간으로 이미 표시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표시를 그대로 믿고 넘어가면 편하긴 한데, 가끔은 우천 취소나 순연, 중계 편성 변경 같은 변수가 끼어들면 시간 정보가 어긋날 수 있어요. KBO와 MLB 모두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최신 변동을 반영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준은 공식 일정이고, 변환은 내가 확인하는 방식이 안정적이에요.

내 경험상 가장 위험한 건 “공식 일정 확인은 오늘 아침에 딱 한 번만 하고 끝” 같은 패턴이에요. MLB중계는 경기 자체가 있고, 시작 시각이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경기 당일에 확인하면서 최종 확정하는 루틴이 훨씬 덜 흔들립니다.

실전 체크리스트: 일정 볼 때 딱 이것만

아래는 내가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든, 공식 일정을 보든 공통으로 쓰는 짧은 확인 루틴이에요. 리스트는 여기까지만 둘게요.

- MLB 일정에서 ET 시작 시간인지 확인하기
- ET 시기에 따라 한국이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는 점을 반영하기
- 한국 날짜 기준으로 “전날/당일/다음날”이 맞는지 한 번 더 보기
- 경기 시작 직전에 공식 일정 페이지로 최신 변동이 있는지 재확인하기

이 네 가지가 묶이니깐, “어제 본 시간표랑 오늘 시간표가 달라요” 같은 스트레스가 확 줄더라고요.

Opening Day 같은 ‘큰 이벤트’도 결국은 같은 원리

MLB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뉴욕 양키스전으로 시작하고, 3월 26일이 본격적인 Opening Day로 잡혀 있어요. Opening Day에는 첫 경기 시작 시간이 4:00 p.m. ET처럼 공지된 경기와 8:05 p.m. ET 같은 경기들이 함께 안내됩니다. 이런 큰 시즌 이벤트는 “대박 시간”으로 기억되기 쉬워서 더더욱 시차 변환이 중요해요.

한국에서는 시차 때문에 보통 다음날 오전~낮 시간대 중계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도 “13시간 vs 14시간”이 갈리면 한국 체감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벤트 당일에는 더더욱 공식 일정 기반으로 한국 시작 시각을 다시 잡아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놓치면 그 다음날로 미루고 싶어도, MLB는 하루 일정이 뻑뻑해서 회복이 어렵거든요.

“야구중계사이트 시간 표시”를 믿어도 되는 조건

야구중계사이트를 안 볼 수는 없어요. 보통은 라인업, 중계 플랫폼, 시청 편의성 때문에 찾게 되니까요. 다만 내가 조건을 하나 세워두는 편이에요. 시간 표시가 있어도, 최소한 시작 시각이 공식 일정과 같은 기준으로 제공되는지 한번은 교차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우천 취소나 순연 같은 변수가 들어가면, 사이트 화면은 업데이트 속도가 다를 수 있어요. KBO와 MLB 모두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최신 변동을 반영한다는 흐름을 알고 있으니, 결국 “최종 판단은 공식”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MLB중계는 특히 시작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워서 더 그렇고요.

여기서 “교차 확인”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ET 시작 시간을 보고 한국 변환을 한 번 더 떠올리고, 사이트 표시가 그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정도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감으로 맞는지 틀린지 구분이 되거든요.

KST로 정리해두면, 다음 경기들이 편해진다

일정표를 매번 새로 계산하면 번거롭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시즌 초에 큰 흐름을 잡아두는 편이에요. 예를 들면, MLB 일정은 ET 기준이고 한국은 13시간 또는 14시간 빠르다는 구조만 머리에 고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주 보는 팀 경기나 “다음날 오전에 걸리는 경기”를 먼저 정리해두면, 그 이후에는 확인 속도가 확 올라가요.

이때 중요한 건 “변환 규칙”을 고정하는 겁니다. 날씨가 바뀌는 구간에서 오프셋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공식 일정에서 ET 표기를 확인하는 습관을 끊지 않는 거예요. 계산을 자동화하려고 하다 보면, 변동 구간에서 오히려 실수를 더 만들 때가 있거든요. 대신 사람 손으로 확인하는 체크 포인트를 남기는 게 제일 안정적이에요.

마무리 대신, 내가 지금도 지키는 한 가지

MLB중계는 재밌는데, 시차 때문에 “기다렸다가 놓치는 느낌”이 생기면 그 재미도 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나는 일정 확인을 할 때 시차 변환을 ‘나중에’가 아니라 ‘확인하는 순간’에 끼워 넣습니다. ET 시간을 읽는 즉시 한국 시작 시각을 머릿속에서 KST로 바꾸고, 그 다음 단계로 중계 화면을 연결하죠.

KBO는 한국 시간 기반이라 덜 흔들리지만, MLB는 ET가 UTC-5 또는 UTC-4로 운영되는 시기가 섞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야구중계사이트에서 시간을 편하게 보여줘도, 결국 내가 경기 시작을 놓치지 않으려면 공식 일정 기반으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낫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루틴만 잡아두면, 새벽에 일어나서도 “아 맞다, 오늘은 이 시간이었지” 하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